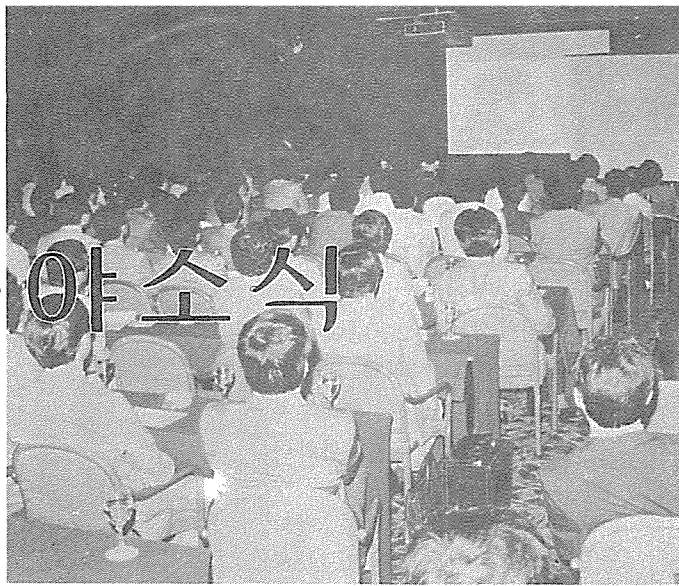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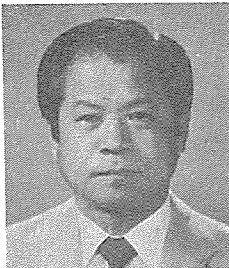
# 학술분야소식



## ◎ 단국齒大병원에 독립된 「악관절 진료실」 開設

교합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별도의 독립된 「악관절 진료실」이 국내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

지난 1일 단국치대(학장·李在賢) 부속병원에서는 악관절(TMJ) 클리닉 개설식을 갖고 본격적인 악관절 장애치료에 들어갔다.



〈이재현 학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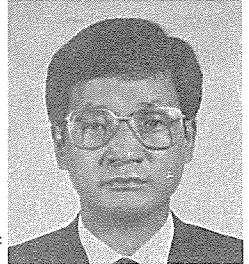
이미 미국과 일본등지에서는 TMJ클리닉이 보편화된 상태로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서울치대를 비롯한 몇몇 대학병원에서만 치료해 왔으나 이렇게 특수클리닉으로 출범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 악관절진료실운영에 있어서의 특징은 여러 임상과목의 교수들이 한 팀을 이룬것으로 보철과의 高錫勳교수를 팀장으로 구강내과 金奇石교수, 치과방사선과 金恩敬교수가 이 클리닉에 참여하게 된다.

이날 개설식에는 李학장을 비롯하여 단국대 부총장, 朴容俊·朴基成총남북지부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개설식후에는 회의실에서 TMJ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高교수로부터 듣고 다과회를 가졌다.

## ◎ 구강보건인력 수급전망 워크샾

치과의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등 구강보건인력 수급에 관한 워크샾이 지난달 25일 韓國人口保健研究院 주최로 열려 구강보건인력은 정책적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수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종열 회장〉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올림픽아호텔에서 열린 워크샾에서 金鐘悅대한국강보건학회장은 「구강보건인력의 중심이 되는 치과의사의 합리적 수급방안은 국민구강보건향상이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 따라서 ▲구강보건행정을 전담 관장할 행정부서의 신설 ▲치과의사 과잉배출시의 예상되는 문제를 감안하여 공급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치과의사의 질적 관리를 위해 대학의 학생정원은 현 수준에서 동결 또는 감축시키고 교육에 필요한 제반여건을 충실히 구비하도록 하고 ▲치과의사 국가시험에 실기시험을 부과토록하며 ▲치과분야 기술보조인력 종별 및 임무에 대한 재정비와 그 수급계획의 정책적 정비를 통해 치과의사의 수급계획을 연관검토토록 하는 한편 ▲구강보건인력의 합리적 수급방안은 국민대중을 위함과 동시에 구강보건에 종사하는 인력도 보호하는 균형 잡히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등을 제시했다.

## ◎ 경북치대 부속병원 설립建議

경북치대는 2천년대에 부응하는 치의학 교육 시설확보를 위해 치대부속병원의 설립은 불가피하다고 대정부건의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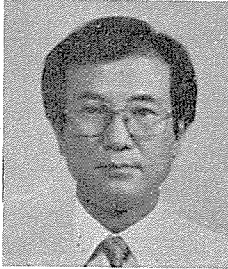
경북치대의 이같은 건의는 날로 발전하고 있는 치의학교육과 관련해 실제적인 치대생 교육을 위한 예산, 시설, 장비, 인력확충등 환경개선에 대한 대책과 임상교육의 불완전한 여건개선을 위한 것이다.

동치대측은 현재 「치과」가 경북의대부속병원의 1개과로 있는 현조직에서 치대생교육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가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치대가 독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수한 치대생 양성을 위한 교육과 2천년대에 부응하는 교육환경 및 진료제도의 설치는 불가능하므로 타 치대와 외국대학의 교과과정에 적응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대졸업생의 20~30%만이 졸업후 전공의 과정을 수료하고 있는 치과대학 교육 현실에서 학부생의 임상교육은 국민구강보건에 절대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학생진료실」 등의 설치가 요구되며 기초의학과 연계교육이 절실하므로 치대 및 치대부속병원을 신설, 독립적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동치대의 이같은 치대부속병원 설립건의는 10여년전부터 거의 매년 이어져오고 있으나 지난해 2월 24일 국립학교 설치령 중 11조3항의 「의과대학부속병원」을 「대학교병원」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치과대학의 부속병원기능도 공유토록한 단순한 행정편의를 위한 조치외에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러나 치대측은 『의대부속병원에 공문한장으로 치대생교육에 지장없이 지원하라는 식의 상황처리는 효과가 없고 의대부속병원 역시 낙후한 실정을 인식하고 의과대학에서 자신들의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에 치과대학



(성재현 학장)

사정의 고려는 거의 무망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와 관련해 경북치대 某교수는 우수한 인재를 뽑아 낙후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충분치 못한 교육을 시행하는 입장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부당국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 치의학 博士 39명 배출예정

서울·경희·연세·조선·경북등 5개치과대학에서 올 後期 39명의 치의학박사가 배출된다.

5개치과대학의 치의학박사학위 예정자는 서울치대 17명, 경희치대 9명, 연세치대 6명, 조선치대 4명, 경북치대 3명등 39명이다.

전국 5개치과대학의 치의학박사학위 예정자는 다음과 같다.

▲서울치대=임창준 백승진 최재인 김성문 이동근(이상구강외과학) 오혜은 김화봉(이상소아치과학) 임윤식 이인석(이상치과방사선학) 김영주(구강진단학) 김태균 윤수선(이상보철학) 이인숙(보존학) 이원재(예방치과학) 김형찬 노희정(이상구강생리학) 이대관(구강해부학)

▲경희치대=나성식(소아치과학) 최창규 장훈(이상보철학) 정희숙(치주학) 경희문(교정학) 박영수(구강외과학) 한봉석(예방치과학) 차덕성 하동규(이상구강병리학)

▲연세치대=김희경(예방치과학) 노수영 상재우 전동호(이상구강외과학) 손창민(치주학) 진태호(보철학)

▲조선치대=배웅(구강병리학) 조용곤(보존학) 강동완(보철학) 김광원(교정학)

▲경북치대=오용하(교정학) 유현모(치과방사선학) 이영호(보존학).

## ◎ 대한심미치과학회, 日本심미치과학회와 자매결연

대한심미치과학회와 日本심미치과학회가 자매결연을 맺었다.

대한심미치과학회 이재현 회장 김석균 총무

이사 고석훈 학술이사 박인출 국제이사등 10명의 임원진은 지난달 15일 東京의 아사이신문기념회관에서 열린 제2회 일본심미치과학회 총회 및 학술대회에 참가, 양會간에 자매결연식을 갖고 학술과 인적교류의 활성화에 주력키로 하는 자매결연 내용문안을 이재현 대한심미치과학회장과 「하가」일본심미치과학 회장이 공동 발표했다.

### ◎ 치과위생사협회 11회 종합학술대회 盛了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지난달 22일 호텔롯데월드에서 창립7주년기념 제11회 종합학술대회를 성황리 개최했다.

관계내빈 및 1천5백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정숙학술이사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개회식에서 문경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민 의보시대를 맞아 유효인력을 적절히 활용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그에따른 치우개선과 양질의 치과진료가 이뤄지도록 그 방안을 연구·개발하겠다」고 밝혔으며, 김종인보사부 부장관은 송재성의료제도과장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일선에서 쌓아온 임상경험을 논의해 치위생사의 자질향상과 국민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해 주길 당부」했고, 이종수치협회장은 주낙림 부회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정보화시대에 사는 직능인으로 최신 치의학에 대한 지식습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최된 학술대회는 이승우(서울치대 구강진단과)교수의 「전신적원인의 악구강 질병관리」, 유봉현(연세치대 방사선과 치위생사)씨의 「환자와 치과위생사간의 상호 의사소통」, 마광수(연대 국문과)교수의 「아름다운 삶」에 대한 특별강연이 진지하게 진행됐다.

또한, 학술대회에서는 테이블 크리닉, 보험상담코너, 서적전시등이 있었고, 이번 학술대회의 여흥프로로 첫선을 보인 지회별 장기자랑 대회는 고은이상(1등)에 충남지회의 사물놀이, 예쁜이상(2등)은 충북지회의 탈춤, 사랑이상(3등)에 서울, 경기, 강원지회의 이중창과 인기상에 고은정학생의 독창이 각각 차지했다.

### ◎서울齒大 車文豪교수 정년퇴임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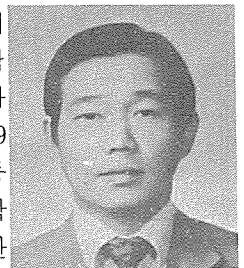
국내에 최초로 소아치과를 도입하였으며 1959년 소아치과를 창립한 바 있는 서울치대 차문호교수의 정년퇴임 축하연이 지난 8월 30일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동료 교수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이날 축하연에는 조완규 서울대총장의 축사와 김명국 서울치대학장의 송별사, 공로패 기념품 증정 그리고 차문호교수의 퇴임사 등이 이어졌다. 40여년을 서울치대에서 줄곧 봉직 해온 차교수는 퇴임사를 통해 『아무것도 이루어 놓은 것 없이 벌써 정년을 맞게돼 부끄럽기만 하다』면서 퇴임소감을 피력했다.

이날 축하연에는 조완규 서울대총장, 이종수 협회장, 한용철 서울대병원장등 다수의 관계자가 참석 車교수의 노고를 위로하는 한편 정년퇴임을 축하했다.



### ◎齒協 南東錫 학술이사 海外研修次渡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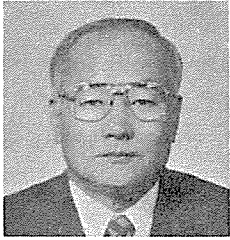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이사이며 서울대학교치과대학교정학교수인 南東錫박사가 1989년 10월부터 1990년 9월까지 약 1년동안 일본 동경의과치과대학에서 교정학을 연구하기 위해 출국한다.



〈남동석 교수〉

◎五星産業 崔洛哲 社長  
서울大齒大에 齒科器材  
寄贈

輸入 一變倒의 齒科用器  
材를 國産化시키기 위해 74  
年 齒科器材生産에 뛰어들  
었다는 五星 齒科産業社의  
崔洛哲사장은 주사기, 밀러,  
에레베이터等 時價 50萬원 相當의 齒科器材를  
서울大齒大에 寄贈했다. 先進外國製品에 비해 秋  
毫도 損色이 없다고 自負하는 崔社長은 質 좋은  
器材를 生産함으로써 國內外에서 큰 好評을 받  
고 있으며 國威宣揚에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  
다. 今番 寄贈받은 同器材는 無齒醫村巡迴診療  
用이나 學生 實習用으로 쓰이게 되며 이에 서  
울대 치대 金明國學長은 五星 崔洛哲사장에  
게 지난 20일 감사패를 傳達한 바 있다.



9월 2일 대전 유성관광호텔 스타볼룸에서 성대  
히 거행되었다.

신형식교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봉정식에는 원  
광대학교 김삼용 총장을 위시하여 치협 이종훈부  
회장, 서울대치대 김명국학장, 경희대치대 최부  
병학장, 조선대치대 조재오 학장과 서울대치대  
와 각 치대 원로교수가 다수 참석한 가운데 김  
삼용 총장과 치협 이종수회장의 축사와 논문집 봉  
정이 있었다.

金南奎학장은 1950년 서울치대를 졸업, 보사부  
치무과장, 대한구강보건학회장, 대전 보건전문대  
부속병원원장을 거쳐 현재 원광대치대학장으로  
재임중이다.

◎원광대치대 松江 金南奎 학장  
정년 기념논문집 봉정식 성료

원광대 치대 학장으로 재임중인 松江 金南奎  
학장의 정년을 기념하는 논문집 봉정식이 지난



< 사진은 정년 기념논문집 봉정식 장면 >

■ 치과용 귀금속 전문 ■  
앞선 技術, 信賴받는 製品

- Casting Gold 1. 2. 3. 4Type
- Palladium Alloy A. B. Type
- Porcelain Gold.
- JWG, JP92 판매중



삼 신 상 회

서울 : TEL. 238-9111 · 6555 · 5858  
부산 : TEL. 754-0806